

타불 염불하라는 것입니다. 효봉, 청담, 동산스님 모두 참선을 한 도인인 데도 아미타부처님을 불렀습니다. 원효스님도 아미타부처님을 부르라고 일렀습니다.

염불하는 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람에게 따라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과 징을 치면서 나무아미타불을 부릅니다. 또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손바닥을 치거나, 두 손의 손끝이 맞닿도록 합니다. 집중하기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집중하도록 돕는 방법일 따름이지,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염불의 근본적인 것은 아닙니다.

대만의 불광산사에 가봤더니, 신도들이 염불을 하며 조그만 종을 치더군요. 나무아미타불을 함께 부르고 명, 종을 치고, 그렇게 반복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스승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스님께서는 상원사 선방에서 수행 중 열병을 앓았을 때 한암스님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쌀에서 뉘와 뉘를 골라내야 하듯이, 공부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골라낼 줄 알도록 가르쳐 주는 스승을 꼭 모셔야지요. 특히 참선을 하는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뉘꼬' 하다가 까딱 잘못하다가는 망상이 들어옵니다. 피가 머리로 몰려 얼굴이 시뻘개지고, 심지어는 정신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수행해야 합니다.

—염불할 때도 상기된다든지 하는 위험이 따르나요?

▲염불은 절대 부담이 없어요. 편안해야 염불이 되고, 가르쳐준 방법대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 됩니다. 그렇다고 스승이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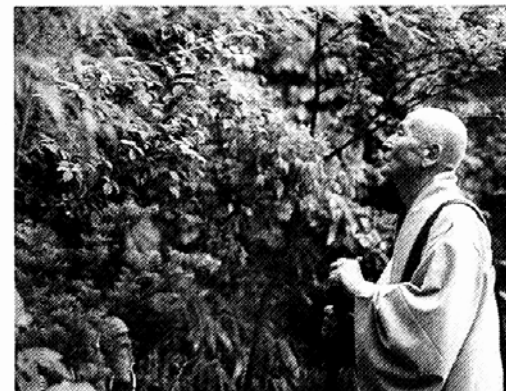
“복만 빌지 말고 마음공부 열심히

염불하면 제불 환화 지혜 얻어”

—염불삼매라는 말은 어떤 경지를 이르는 것이지요. 염불의 공덕은 무엇인지요.

▲삼매는 자기의 본래 청정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삼매에 들면 삼라만상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매에 들어 무엇을 봤다는 말 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삼매의 경지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도를 깨쳤다고 하면 벌써 도가 아니라 이치와 같습니다.

중생들은 결과를 미리 보여줘야 따르지요. 염불을 하면 열 가지 공덕이 있다고 했습니다. 수행을 하는 데는 잠이 가장 큰 마구니인데, 능히 수마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첫째입니다. 둘째, 여러 신이 무섭지 않게 됩니다. 전과가 두루 퍼지듯 염불소리가 온 세상을 덮습니다. 지옥, 아귀, 축생의 삼악도(三惡道)의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불(諸佛)이 환희하며 큰 지혜를 얻습니다. 용맹스러운 정진을 성취해 왕생정도에 이릅니다.



◇극락정토를 발원하며 염불수행에 전념해온 설산스님. 내년 9월 만일 염불을 회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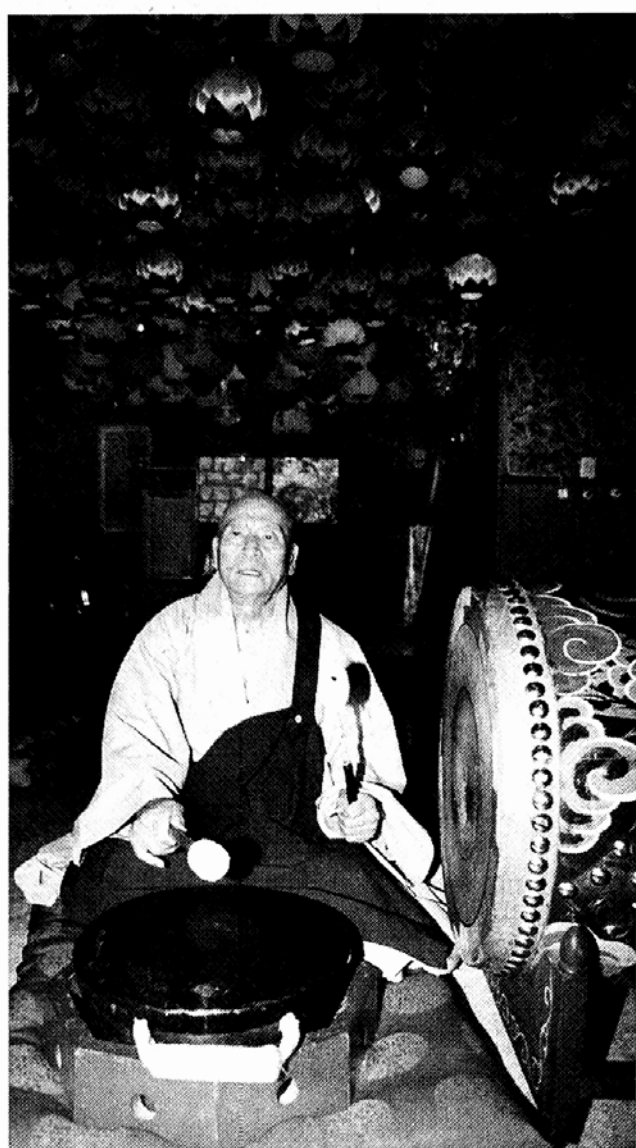
—참선수행을 하다 금강경을 공부하셨는데, 왜 금강경이었습니까?

▲금강경은 12인연, 아미타식 등 우리 마음의 근본을 열리게 하고 더욱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선방에서 금강경을 많이 배웁니다. 반야심경이 금강경의 요지인데, 없어지지도 않고 생기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더럽지도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나무아미타불하고 염불하면 부처님이 함께 하시며, 내가 곧 부처님이라고 하셨습니까. 또 금방 말씀하셨듯이 불구부정(不垢不淨), 부증불감(不增不減)인 도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는 꼭 불상에 금철을 하고, 백호를 넣어 광명을 발하도록 해야 부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먼지가 거울을 잔뜩 덮고 있는데,



◇설산스님은 “불교는 복을 달라고 비는 종교가 아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늘 강조한다. 염불수행에 집중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설산스님은 북과 징을 이용한다.

들려다본 볼 제대로 보이지 않겠지요. 물을 흔들어봐요. 거기에 얼굴이 제대로 비치지 않겠지요. 번뇌망상을 닦지 않으니 나타내지 않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불교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내가 체험한 부처님의 진수를 하나 들려드리지요. 일제 때 발가락 네 개를 자르고 학병에 나가지 않았는데, 발가락을 잘라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메디컬센터에서 수술하고 열 달만에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먹지 못해 송장과 같았어요. 하루는 내가 육신을 떠나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중 울음소리와 두런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미 내가 죽었으니가 염하는 중이었고, 내가 어느 큰 산의 돌문을 들어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나가라”고 지르는 소리에 놀라 뒤로 넘어졌어요. 손가락을 꼭지락거렸는지 “살아 있죠” 그래요. 죽음을 경험한 것이죠.

육신을 느낄 때는 괴롭지만, 육신을 느끼지 않을 때는 편합니다. 수행은 생사를 초월하자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본성을 깨달아 생사에 연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재물과 명예에 눈이 멀어진 안되겠지요.

—스님께서는 시를 쓰시기도 하세요. 한 편 소개해 주시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로써 전하려는 뜻인지요.

▲염불하고 정신이 맑아지면 가끔 쓰지요. 요즘은 건강이 좋지 않아 멀리 하고 있습니다. 산거(山居)라는 제목을 붙인 것인데, 들어보세요.

‘낮달이 걸려있는 소나무 가지 바위 아래 / 주리면 열매 따고 풀섬으로 바람 비 가려 / 웅달샘 달빛을 읊겨 마시며 저 멀리 / 도술한 별빛이 진 주알처럼 들어진다 / 연(緣)은 무상(無常)이요, 정(情)은 환멸(幻滅)인데 / 산에서 사는 사람 마음이 없다 하오

대담·정성은 차장 (swjung@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지목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정스님 ②

“집을 떠나기 전에 내가 말했던 일은 책 때문이었다. 녀석지 못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독자(獨子)인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비교적 자유롭게 개랄 수 있었다. 할머니의 사람이 나를 그렇게 길러주었을 것이다.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책더미 앞에서 나는 또 생나무 가지를 찢는 사슴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내 유일한 소유물이었기 때문이었다. 서너 권쯤은 몸에 지니고 싶어 이 책을 뽑았다가 다시 꽃아놓기를 꼬박 사흘 밤을 되풀이했다. 그것은 지독한 집착이었다.

책 몇 권을 가지고도 이러는데, 정든 처자 권속을 두고 나오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떨까. 능히 이해할 만한 일이다. 결국 세 권을 뽑아 집을 꾸렸지만 산에 들어와 보니 모두가 시시하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다.”

《출가기(出家記)에 나오는 스님의 담담한 회고담이다.

스님은 임신상으로 음력 2월 15일생이니 금년 춘추는 69세이다. 한번은 “2월 15일이 부처님의 열반재일 날인데 스님 생신입니다.”

충천의 기상 넘치는데

어찌 여래 가신길 따를까

하고 말씀 올렸을 때, “그건, 호적상으로만 그래.” 하셨는데 춘추도 호적상으로 몇 살 적다. 스님은 정라남도 해남 땅에서 박씨 가문에 외동아들로 태어나, 일찍 부친을 여의고 목포에서 지내다가 23세 때에 충무 미륵산 미래사에 출가하셨고 지리산 쌍계사에서 은사 효봉 노스님을 모시고 탁발을 해가며 공부를 한 바가 있으시다.

초대 영경원장을 지내신 운허(耘虛) 대강백을 모시고 해인 강원에서 수학했고 운수납자의 길에 올라 선원 대증생활을 한 때가 있으시다. 처음엔 무자(無子) 화두로 정진을 하다가 두 번 째에는 관법(觀法)을 통해 스님의 입지(立地)를 본뜬히 하신 것으로 해아려진다. 일화(逸話)가 많다.

언제 들은 이야기이지 잘 모른다. 한번은 스님이,

“나도, 도적질을 한 적이 있었어.” 하고 말씀하셨다. 학교 앞 장소에서 상이 군인인지 다리가 부자유한 사내가 잉크지우개, 콘사이스, 문방구, 책 등을 길바닥에 늘어놓고 학생들에게 팔아서 그걸로 살아가는 가난한 노점상. 스님이 별 내용이 없는 책인데도 그냥 호기심으로 퍼들고 넘겨보는 순간이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려와 스님이 그들에게 밀려서 주인 사내와 약간 멀어져 버렸다. 주인 사내는 다리가 부자유스러워 쉽게 일어선다고 할 형편이 아닌지 그냥 앉아서 학생들과 흥정을 하며 팔고 있었다. 순간, 스님은 책을 슬쩍 가방 안에 넣어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다려나 성한 사람 것 같으면 덜 미안한데...” 하신다. 이때 나는 스님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큰 기쁨을 맛보았다. 의외로 재미있으시다.

또 이런 일도 있다. 스님이 목욕 배를 하신 날이었다. 아궁이에 장작불을 많이 모아두

고 배를 방바닥에 늘어놓고는 그냥 쓰러져서 살짝 잠이 드셨나 보다. 밤중이었다. 잠이 깨었다. 문득 배중에 세상사람들은 무엇을 하나 금금해서 소형 라디오를 켰다. 이때 이런 말이 막 흘러나와 귀를 기울였다.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음악 편지 시간입니다. 오늘 밤은 법정스님의 무소유를 낭송하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다락에 가서 옛 책을 꺼내와 오랜만에 무소유 책을 펼쳐서 라디오 진행에 따라 함께 읽어 보셨다고. 차를 마시면서 “참, 오랜만에 무소유 읽었네. 하하하” 하고 웃으신다.

산을 탈 때에는 젊은 우리보다 더 힘있게 앞장서신다. 비결은 발바닥 중간쯤에 위치한 용천혈(湧泉穴)을 자극하는 법을 터득하셨기 때문이다. 그냥 돌을 피해 걷는 게 아니라 용



그림·문병성

천혈을 자극하면서 발바닥 중간으로 밟고 가신다. 건강도 의외로 좋으시다. 그 연세에 자취 생활이라니! 혼자 지어 잡수시는 건 아무나 흉내낼 정도가 아니다.

내가 글을 쓰는 된 연유는 이렇다. 하루는 제목으로 ‘여름날 돌계단 쌓기’를 주면서 원고지에 10장 가량 써오라고 하셨다. 스님이 <불일회보> ‘불일탑(佛日塔)’ 고정란에 매일 연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대신 실으려고 하신 것이다. 두어 차례 말씀 끝에 쓴 글이 ‘법보의 소중함’이었다.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는,

“아니, 이제 중이 된 아이 아니야?” “지목이가 벌써 불일탑에 글을 올려?” 하는가 하면 찬탄하는 쪽에서는, “송광사는 물이 그래서 그런가? 글을 쓰는 이가 많아.”

“괜찮군, 앞으로 유망해 보여.” 하고 격려를 보내 이도 있었다. 이 한차례 글이 불일탑에 실림으로 해서 말하면 일종의 추천이랄까 인정을 받는 자리가 된 셈이다. 그 이후 나는 10권의 책을 엮어내면서 생활 불교와 선 수련 이야기를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해 왔다. 의도적으로는 스님의 책을 잘 펼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문체 스타일 등이 스님을 닮아갈 것을 염려한 까닭이다.

“장부에게는 충천의 기상이 넘치는데, 어찌 여래(如來)가 가신 길을 따라 갈 것이냐?” 스님의 교훈이시다. (계속)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석기탄신일을 기념하여 특별 선물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향은 佛法僧 三寶에 올리는 최고의 공양으로 최고의 경지인 해탈을 뜻합니다.

특히 오분향은 『大般若經 卷四十九』에 나타나 있듯이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말하며, 계향(戒香)은 계를 잘 지켜 나가는 향기, 정향(定香)은 선정으로써 탐진치 삼독을 벗어나 적정에 드는 향기, 혜향(慧香)은 명상력을 통한 지혜의 향기, 해탈향(解脫香)은 지혜의 통찰력인 혜를 통해 얻어지는 절대자유의 향기,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은 해탈을 통한 구별력과 사리 판단의 향기를 의미합니다.

석씨향방은 순수한 한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스님께서 직접 만든 새천년의 향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를 기도할 때(항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계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지신·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요마·귀신·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가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계향) 있습니다.

● 오분향과 생기향을 만든 동기

향을 사후에 부처님께 공양하려 염불 수행 20년이라 그간에 이념모를 가지지 않았을 때, 향을 피울때마다 머리가 아프고 눈이 멍고 기침이 나고 목이 따갑고 기관지 등에 이상이 생겨 매우 괴로워서 향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외국 향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엄청난 외화 낭비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제자 소납은 우리 몸에 해롭지 않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향을 생각하게 되었으며, 여러 경전을 통하여 향 만드는 법을 알아서 연구하기 10여년 일생 소원이었던 부처님 최고 공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공 화학물질이 전혀 들지 않고 순수한 천연재료로만 만들었습니다. 향을 사랑하는 향기로온 여러분, 이제 안심하시고 향을 가까이 하십시오. 꼭 달라진 새천년의 향!

여기 우리 문화와 전통을 살리며 향을 전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 인정받은 석씨향방의 오분향과 생기향을 사용해 보십시오. 옛 선인들께서 향을 가까이 했는가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 불자님들, 삼보님께 그리고 존경하는 분께 향을 선물하세요. 가장 큰 공덕이 되실 것입니다. 위 상품 판매수익금중 일부는 삼화불교대학 교육기금으로 쓰여집니다. ※ 향꽃이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공급처: 석씨향방
판매처: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삼화불교대학 내 혜인선원 사업부 원장 석가산 스님

전화번호: (02)3446-8148, (02)3446-5889
계좌번호: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협 071-02-257470

예금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함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